

Hot Issue & Cool Vision

2004/06/15

미군 재배치 계획(GPR)과 한중관계

이남주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차례

1. GPR에 대한 중국의 반응
2. 중미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3. 미군재배치와 한중관계

내용 문의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28-27 동원빌딩 5층(우110-759)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전화 (02)739-0611 / 팩스 (02)739-0616 / e-mail kifs@kifs.org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미군 재배치 계획(GPR)과 한중관계

이남주 (미래전략연구원 남북국제연구위원)

1. GPR에 대한 중국의 반응

최근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군재배치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한미협약에 대해 이는 한미 양국의 문제이며 이 결정이 양국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공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 중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군 재배치와 최근 결정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은 주로 사실을 위주로 주한미군 감축 협상을 다루어왔다. 사실 주한미군의 철수가 아닌 감축이 당장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성급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 중국의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관심은 미군의 재배치가 어떤 전략적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게는 주한미군의 규모보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더욱 민감한 문제로 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10월 “제5차 미러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 기동군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이번 5월 25일 미8군 사령관이 다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그 동안 공개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냉전시기에는 소련의 군사력 팽창과 위협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냉전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존재를 용인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한 전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전제는 점차 무너져왔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모두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진초기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 감축과 이후 한미동맹의 재구성은 새로운 시기 한중관계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 중미관계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외교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왔다. 1970년대 이후 비교적 순탄하게 유지되던 중미관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1995-6년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대치, 1999년 주유고 중국대사관에 대한 미사일 오폭, 2001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의 충돌 등으로 중미관계는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사태들의 처리에서도 중미 사이의 전면적 대결구도가 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는 중국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전략에 대한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이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이전에 가능하면 중미대결 구도가 출현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작년부터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소위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和平蹶起)”를 주장하며 이러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내에서 “중국위협론” 등 중국을 새로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국위협론”은 처음 등장하였던 1990년대 중반에는 냉전적 사고의 유산이라는 등의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2000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부시 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부시의 대통령 당선은 중미관계에 새로운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은 중미관계를 호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으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해졌고 중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중미관계는 다시 일시적인 밀월기로 접어들었다. 즉 중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협력하고 이 지역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미국은 과거에는 인권문제로 접근하였던 중국 내 신강지역의 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규정하여 중국의 신강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최근 중국 내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제전략에 대한 논문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비해 중국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냉전적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는 주장들이 증가하였던 것과 비교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전략적 이익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중국의 영향력 팽창을 막기 위한 포위망 구축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치로는 미일안보협력의 강화, 동북아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그리고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군비경쟁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나, 이처럼 자신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움직임에는 명백한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다. 중국의 우려는 다음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결 구도가 등장하고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포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이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우려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중국의 성장에 대한 위기감과 경계심을 이용하여 과거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였던 주일미군과 미일안보협력의 기능을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새로운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석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게 심각한 경제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군재배치 과정에서 호주, 필리핀과의 군사적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대만문제의 군사문제화이다. 시급성이란 측면에서 따지면 이 문제가 중국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만에서는 1988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중국인이 아니라 “대만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어왔다. 특히 이번 총통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천웨이비엔 2006년 헌법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면서 상황은 긴박하게 발전하고 있다. 대만은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을 향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이 독립으로 나아갈 경우 전쟁을 불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은 대만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군력 및 해군력의 강화, 미사일 전면 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면서도,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대만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형 무기 판매 등 대만의 방어능력 강화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문제는 점차 중미 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3. 미군재배치와 한중관계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갈등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재배치가 단기적으로 지역의 군사력 균형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전략적 의도는 이후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추세를 고려하면 미군재배치와 주한미군의 감축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한미의 군사동맹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있다. 한국은 여전히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실현시키는 것에

제한하려는 반면, 미국은 그 역할을 동북아시아 전역으로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미 군사동맹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친미나 반미나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및 한반도가 어떤 위치에 서야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이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이 개입하게 될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만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지역 기동군으로 역할을 재조정한다면 이러한 잠재적 충돌에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 오산 지역이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기지로 선택된 것이다. 중국에게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활동 범위의 확대는 결국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에 개입하게 될 개연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한중관계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을 어떻게 군사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지향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은 당장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만 명이상의 주한미군이 존재하며, 남북 사이의 경제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지 않다. 반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과 대립하는 구도가 출현할 경우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 변수를 고려하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이 택하여야 방침은 명확하다.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재편에 대한 의구심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택 및 오산 기지를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미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미군재배치 검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7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진행하고 있는 훈련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미군재배치 검토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위협의 성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할의 조정은 대외적인 선언 없이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군재배치 검토에 대해 당장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대만 사태가 악화되는 경우에 발생할 것이다. 대만문제에 대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중국의 군사력도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계속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 및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미군재배치 검토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입장은 한미 군사동맹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중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수록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관계의 역할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4년 06월 15일 미래전략연구원>